

변창흠 장관, “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”

- 3월 2일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청렴실천 다짐 -

-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졌다.
 -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도로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부동산원,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하였으며,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반부패·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.
 - 협약의 주요내용은 ▲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, ▲핵심 반부패·청렴시책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, ▲공동 과제 및 각 기관별 청렴실천과제의 이행 노력, ▲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, ▲우수한 청렴사례 발표 및 확산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다.
-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“청렴은 자존심”임을 강조하며,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국토교통부는 올해 내·외부 고객의 부패경험률 Zero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특히 “산하 공공기관의 관리·감독 업무에서 부패행위나 갑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”임을 덧붙였다

2021. 3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